

로버트 바노이, 대선지자, 강의 3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이사야 2장 1-4절 탐구

이사야 2:1-4 후천년의 관점에서 [알렉산더]

해석적 종말론적 입장에는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이라는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Post-mils가 이 구절을 어떻게 다루는 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 저는 JA Alexander를 사용하여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주석은 매우 유용한 주석입니다. 그는 다른 많은 출처를 인용하고 원본 텍스트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유용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종말론적인 측면을 지닌 이사야서 부분에 접근할 때 포스트밀(Post-mil) 관점에서 그렇게 합니다.

교회의 승영

인용문에서 2번을 보세요. 저는 다양한 구절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 부분에서 선지자는 2-4장에서 교회의 미래 승영과 이방인의 가입을 예언합니다.” 보시 다시피 , 그는 전체 예언을 교회의 미래 승영으로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견고히 서리라 ” 는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로 흘러들리라” 는 것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 “1장 1절에 나오는 제목과 비슷한 제목이 붙은 후에는 어느 먼 시기에 교회의 예언이 높여지고 눈에 띄게 될 것이며 열방은 교훈과 참된 종교를 위해 그것에 의지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전쟁이 그치고 우주에 평화가 깃드는 것을 보았습니다(2-4절).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궁극적인 결과는 전쟁의 종식과 우주적인 평화의 확립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교회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갑작스러운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에 대한 국가들의 합류와 그 결과의 일반적인 분류(2-4절). 교회는 눈에 띄고 모든 나라를 끌어들이는 사회라고 현대 어법으로 말하는 대신에, 그는 성전이 서 있는 산을 다른 산 위에 세워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세워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 그는 “교회에 어울리는 상징적 언어다” 라고 말한다. 그것은 9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의 논평에서 첫 번째 문장은 95 페이지이고 두 번째 문단은 96페이지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국의 합류는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그 동기는 그들 자신의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옛 경륜의 시대에 예루살렘, 즉 시온이 유일한 기탁이었던 참 종교를 배우고자 하는 소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98 페이지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는 의무의 법칙이자

여호와와의 말씀인 참된 종교입니다. 참 종교는 예루살렘, 즉 교회에서 드러납니다.

복음 전파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4절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곳이 바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며; 더 이상 전쟁을 배워서도 안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구절에서 열국의 입법자이자 교사로 등장했던 사람이 이제 중재자, 즉 심판자로 표현되어 있으며, 전쟁이 중단되는 데 필요한 결과인 구체적인 개입을 통해 분쟁을 종식시킵니다. 예술에 대한 지식 자체가 사라지고 그 도구가 다른 용도로 적용됩니다. 이 예언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치하의 일시적인 평화 속에서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이전 조건, 즉 열방이 교회로 합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됩니다. 이는 방해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유인이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평화롭고 정신적으로 실제로 어디에서나 [그리고 주목]하려는 의도입니다. ' 그가 민족들 사이를 판단하시며 중재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들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들이 나라들을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그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복음의 확산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멀리 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는 거의 한 세기 전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종식의 결과를 보는 데 있어서는 그때만큼 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스트 밀의 해석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이러한 상황이 인간의 마음에 거듭남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동기가 됩니다. 그것은 포스트 밀 해석에서 알렉산더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 대한 또 다른 예시는 Keil과 Delitzsch 주석의 Delitzsch입니다. 귀하의 인용문 5페이지입니다. 3절에서 Delitzsch는 이것이 116 페이지에 있다고 말합니다. “Theodoret이 관찰한 대로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 마치 샘에서 나온 것처럼 온 세상에 흘러갔다는 사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다음 구절에서 약속된 것의 미래에 여전히 찾아야 할 결론의 서곡일 뿐입니다.”

그다음 116, 117쪽에 있는 4절: “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사 많은 백성에게 공의를 행하시리니 그들이 칼을 보습으로 바꾸고 창을 낫으로 바꾸기를 바라는 것 같으니라. 나라들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전쟁에 나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철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고용의 무기로 변모합니다. 더 이상 군사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용하게 적용할 수 없는 일을 연습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무력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축복하시는 완전하고 참된 평화입니다. 짐승의 힘이 세계 역사에서 정점을 이루는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면 짐승은 파괴될 것입니다. 진정한 인류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보내어 지배권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그의 다음 말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세상 역사가 끝나지 아니하리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소망을 품을 수 없겠느냐? Quenset에 따르면 우리가 칠리주의자, [즉, 미래의 천년왕국 시대를 보는 사람들인 전멜레니얼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이사야를 바로잡아야 할까요?’ 기독교국의 인도주의적 사상은 오경, 특히 신명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사려깊은 유대 학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서는 앞으로 수 세기 동안 현대 세계에서는 도달할 수 없고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는 높이에 도달합니다.’” 그런 다음 Delitzsch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예언의 말씀]은 실현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여기에서 인용한 예언의 말씀은 도덕적 자세, 즉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신성한 역사의 목표를 확증합니다.” 따라서 후천년설의 견해는 이 예언이 교회를 통해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 결국 전쟁이 멈추는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사야 2:1-4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청소년]

좋아요, 그것은 그것에 대한 후천년기 의 이해입니다. 무천년설에 대한 이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마지막 날” 에 대한 영의 견해와 그가 이 예언이 “마지막 날” 에 적합하다고 보는 방식을 논의하면서 그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8페이지를 보세요. 우리가 보지 못한 인용문이 바로 페이지 중앙에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에 대한 영의 주석 101페이지와 102페이지에서 나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이사야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환유로 표현된다는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 [그래서 당신은 비유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집의 산’ 이라는 환유로 표현되는 주님에 대한 예배는 다른 모든 종교와 예배 형태를 압도할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의 우월성이 드러나는 곳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인정받는 곳이다. 이사야 시대에 이 예배는 비교적 모호했으며 사실상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습니다. 나라들은 여호와를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압 족속의 그모스와 같은 지역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후기에는 시온이 높아지는 만큼 이스라엘의 이 종교도 온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신약성서에 비추어 볼 때, 이 예언의 언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세우신 교회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 세계를 다니며 참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는 모든 피조물을 위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시점에서 당신은 후천년설주의자들 사이에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과 복음 전파에 관한 무천년설주의자. 바로 EJ 영입니다.

거기를 따라가세요. 이것은 102페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12는 각주입니다. “많은 현대 작가들에 의해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따르는 천년왕국 동안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답변으로.” [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예언이 메시아 시대인 후기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해야 합니다.” 지금은 “후기” 이기 때문에 복천년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받는 축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길로 행하기 위해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끄실 때만 주님을 취합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의 사역이다.”

그런 다음 Young의 103쪽에 나오는 다음 단락을 주목하십시오. “이제 여호와를 아는 것은 한 나라만 아는 것이 아니요 모든 나라가 그를 아는 것이니라. 이사야가 ‘많은 백성’ 이라고 말할 때 그는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큰 무리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나그네와 나그네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복음의 영광이 열방에게 가리워졌습니다 . 그러나 후기에는 교회가 눈에 띄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흩어진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시온으로 모여들 것이다. 어떤 국가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나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시온은 진리의 중심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듣고 싶다면 진리가 있는 곳, 즉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 단락. 이는 아밀 입장을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석에 제시된 해석에는 두 가지 일반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인 이 시대에 전쟁이 완전히 멈출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포스트 밀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 반면에, 그 예언이 현 시대에 성취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은 천년왕국에 성취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로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견해에 대한 그의 논평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후자의 해석은 심각한 종류의 폭력을 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성경적 종말론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하여.” 즉, 여기서 그의 주장은 “시스템이 폭력을 행사한다” 는 입장을 구조에 더 가깝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포스트밀 해석이나 프리밀 해석에 반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 두 입장을 모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한, 그분의 통치 원리를 그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격이란 “사람이 주님께 배우고 그분의 정부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한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에도 [그리고 여기에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들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한 이 예언은 성취됩니다. 동시에 죄는 여전히 존재하며, 주님의 재림 때 죄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는 이 예언이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후기 날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반면, 이 마지막 날에 도입된 축복된 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종말론의 일반적인 구조의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될 것이다.”

보시다시피 그는 같은 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실제로 본문의 해당 문단에 대한 각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이행되지만 원칙적으로만 이행됩니다. 이러한 평화의 조건이 실현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한 성취됩니다.” 온전하게 말하면 그것은 후기에 있지 않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영원한 무대로 밀어넣고 계십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는 말의 영적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이 실제로 전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평화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영은 그다지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아밀 통역사가 있습니다. Young은 자격을 부여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만큼 이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성취는 말세를 넘어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가 말했듯이 이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종말론의 구조에 충실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그를 이런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의 시스템입니다.

Vannoy의 전천년기 대응

보기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텍스트의 언어를 정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민족들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민족의 송사를 해결하시리라” 고 했습니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성취되거나 원칙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만국을 심판하며 다스릴 때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무천년설 관점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있는 칼빈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칼빈의 글을 모두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입니다.” 칼빈도 영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이사야)는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나라들을 그의 통치하에 두실 때 따라올 유익한 결과를 언급합니다. 평화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고 상상하면서도 광적인 정욕으로 평화를 방해합니다. 교만과 탐욕스러운 야망으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잔인하게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히 사회에 봉사하려는 악한 정욕에 이끌리기 때문에 이사야는 여기서 이 악을 바로잡는 화해의 복음을 약속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적개심을 제거하여 사람들이 서로 평화와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은 온유하고 맹렬함을 버리고 평화 추구에 전념할 것입니다.” 해당 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게다가 이사야는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이 다툼을 끝내는 탁월한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너무 잘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너무 많은 교회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글쎄요, 사람들은 실제로 주님께 복종하지도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이 말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싸움을 끝내는 훌륭한 치료법이 될 것이며 , 그럴 뿐만 아니라 분노가 제쳐지면 사람들은 서로 돕고 싶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칼이 부서져 조각나리라' 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곡괭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전에 했던 것처럼 서로를 짜증나게 하고 여러 가지 불의한 행위를 저지르는 대신 평화와 우정을 키우고 모든 사람의 공동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음 단락으로 내려가면, “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라마드라는 단어는 '익숙해지다' 또는 '배우다' 를 의미하지만 선지자의 의미는 충분히 분명합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기술을 익히지 않을 것이며, 이전에 습관적 으로 하던 것처럼 잔인하고 불의한 행위로 서로 다투지도 않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이 문장에 주목함) “ 온유한 마음이 형성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친절한 직분을 수행하도록 이끄는 형제애가 다스리지 않는 복음에 대한 능숙함이 거의 없다 ” 고 추론합니다.

자, 다음 문단에서 칼빈이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볼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평화주의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칼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음 단락을

주목하십시오: “일부 미친 사람들은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기 위해 이 구절을 고문합니다. 마치 교회에서 칼을 사용할 권리를 완전히 빼앗고 모든 종류의 전쟁을 큰 차별점으로 정죄하기 위해 칼을 사용하는 것[이사야서의 구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왕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을 불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변호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쉽습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말하였느니라.” 즉,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비유적인 언어입니다. “그는 상호 친절을 통해 사람들을 인도하여 서로 화해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 전쟁, 즉 우리가 전쟁에 대해 말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경전에서는 “검 없는 자는 칼을 살지어다” 라는 구절에서와 같이 지정된 사물을 의미하는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추종자들에게 싸우도록 유도할 의도가 없으셨지만 전쟁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십시오: “화합과 평화의 상태에서는 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평화가 존재한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그는 Young과 똑같이 들리며 실제로 Young은 아마도 Calvin에서 그 표현을 따온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존재하며 이 두 가지는 상호 관계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통치하시면 좋겠지 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줄이 그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예언의 온전한 성취는 땅 에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 밀어냅니다. “우리는 시작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상호 우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무천년설주의자가 직면할 후기의 문제에 주목하십시오 . 그는 후기를 재림 사이의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는 이 예언의 말씀이 현재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보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원칙이나 어떤 유형의 적격한 이행에 의존해야 합니다.

Laetsch의 무천년설 관점

무천년설주의자를 한 명 더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다소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더 많이 합니다. 그는 Theodore Laetsch입니다. 6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Laetsch는 루터교인이자 미주리 대학의 루터교인이자 무천년왕국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주석은 소선지서에 관한 것이며, Laetsch의 6페이지에 있는 이 단락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라는 미가서 평행 구절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따온 것입니다. Micah의 글이지만 같은 문제입니다. “미가 자신은 세계 민족들 사이의 정치적 평화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먼저 세워져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의 기독교 교회로 모으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장에서 주목하세요. 그것은 나에게 흥미로울 것입니다. “엘라배마 출신의 기독교인과 오하이오 출신의 기독교인, 한 사람은 남부 회색 옷을 입고, 다른 한 사람은 북부 청색 옷을 입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였으며, 둘 다 그의 평화의 왕국의 구성원이었으며, 둘 다 공동의 구주에 대한 믿음을 원했고, 둘 다 평화의 왕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평화를 누리고 서로의 영적 복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절이 남북전쟁 중에도 신자들이 서로 죽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그가 주신 그리스도의 평안을 깨닫고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보세요, 영은 칼빈처럼 현재 상태의 완전한 영화에서 물러나서 완전한 영성을 영원한 상태로 밀어넣습니다.

무천년설과 후천년설 입장의 어려움 요약

이제 우리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전천년설은 이 두 가지 입장의 문제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밀은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고 말하는 다른 성구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과연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밀 입장은 재림 사이의 입장에 고정되어 있으며 성취에 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 비유적인 성취를 보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premil 견해가 문제가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같은 예언의 미가 문맥에서 특히 요구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밭처럼 파멸되고 갈아질 것이나 장래 날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열방과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며,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사전 결론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두 가지 견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과 비유적 해석에 대하여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해보죠. 이것은 여전히 2절의 문자적 의미 대 비유적 의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분기에 문자적 대 비유적 의미에 대한 전체 문제를 논의했고 그때는 다소

추상적으로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시점에서 그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어떤 간단한 경험 법칙도 모릅니다. 내가 항상 어떤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물이 분명히 비유적으로 의도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것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일 의도가 있고 언제 어떤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의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씨름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석하는 과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을 읽어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 중에 굳건히 서리라. 그것이 언덕 위에 솟아오르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리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텍스트에 어느 정도의 문자적 대 비유적 표현을 적용합니까? 알다시피, 아밀은 극단적인 비유적 해석을 취하여 이것이 단순히 교회의 탁월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구약의 시온, 즉 예루살렘을 교회를 대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의 산은 산들 중에 굳건히 서리라. 그것이 언덕 위에 솟아오르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리라.” 그들은 이것이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미가서의 맥락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언덕 위에 솟아오르고 모든 나라가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라는 마지막 구절의 일부 표현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그것은 지질학적 용기가 있을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시온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문자 그대로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까? 나는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의 요소입니다. 2절 후반부 “산들 위에 솟아오르리라” 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J. Barton Payne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문자주의자라고 말한다면, 그 진술은 예루살렘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러면 문자적인 것과 비유적인 것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말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도 수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과 씨름해야 합니다 . 거기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극단적인 비유적 해석을 하여 그것은 전혀 예루살렘이 아니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변형된 비유적 이해로 가서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루살렘의 탁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가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리적인 고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당신은 다른 곳과 본문의 문맥에서 성경의 용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많은 사람이 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저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리로다.”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실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루살렘의 탁월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J. Barton Payne이 인용한 6페이지를 보십시오: “사 2:2a; 4:1a ’ 여호와의 전의 산은 작은 산 위에 굳건히 세워지리라’ 스가랴 14:4나 10에도 예언된 지형의 비슷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의 백과사전에 나오는 70번과 75번의 예언입니다. “ 따라서 이 ’시온을 높이는 것’에 대해 자유주의자들과 다른 보수주의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우화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은 기적적인 지질학적 변화, 즉 후기에 성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리아산 성전이 주변보다 높아지면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 이제 그는 “주변보다 높은 곳” 이라고 말합니다. “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임을 받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아마

당신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산 중 최고입니까? 아마도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일 것입니다. 어떤 주변 환경인가요? 5마일, 10마일, 50 또는 100마일; 모르겠습니다.

Premill에 대한 반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십시오”와 Vannoy의 응답

이에 대한 사전 이해를 비판하기 위해 흔히 묻는 또 다른 질문은 이사야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대적하여 다시는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마지막 문구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NIV는 “그들은 더 이상 전쟁 훈련도 하지 않을 것 ” 이라고 말합니다. 예비군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군 상황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 입장의 핵심 구절은 천년왕국 말기에 사탄이 풀려나고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천년왕국 시대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예언과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킹 제임스 성경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합니다. NIV, “그들은 더 이상 전쟁 훈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NASB는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번역판은 이 평화의

때가 도래하고 전쟁이 영원히 끝날 것임을 시사합니다. 문제는 이를 premil 위치와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에 대한 답으로 이런 제안을 하겠다. 히브리어에는 부정 'lo' + 불완전동사 + 'od'의 조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의 용법을 보십시오: “더 이상 그를 숨길 수 없게 되매.” 그것은 바로 직전에 모세가 갈대밭에 숨겨졌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갈대밭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는 아니지만 지속성이 부족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들 속에 더 이상 영이 없더라.” 여호수아 5장 1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기적적으로 물이 멈추는 일로 가나안에 들어간 정복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 이전에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중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영이 다시는 그들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단, 공격 정신의 지속 부족이었습니다.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5:12: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더 이상 만나가 없었습니다.”

내 생각에 문맥상 요점은 만나가 멈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그 땅은 영원히 그쳤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매일 만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쳤다. 그것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아이디어가 'ad'olam(영원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NASB가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od lo' + 'od"는 지속성이 부족함을 시사합니다.

여호수아 5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질문: 강조점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현재로서는 계속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이사야서 2장 4절에 표현된 방식의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 존재했던 어떤 것이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때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그분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인간 존재의 일부였던 그런 종류의 환경, 즉 전쟁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천년 후에 그것이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항상 인간 상황의 일부였던 것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마지막 문구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구절에 대한 사전 해석의 타당성을 배제하는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과 칼빈은 그것이 지금은 원칙적으로 성취되고, 완전한 성취는 영원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말세”가 영원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은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흐름의 연속체에 두는 것 같습니다.

NIV에는 “그들은 더 이상 전쟁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라마드는 문자적으로 “배우다”를 의미합니다. 전쟁이 단순히 부적절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 끝에 다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점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체국 직위는 주로 1800년대에 유지되었으며 세계 대전으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신명학 운동을 통해 작은 부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번엔 거기서부터 데리러 가겠습니다

Ted Hildebrandt가 각본 및 대략 편집함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